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2. 11(월) / 총 3매(본문2)
담당부서	물류시설정보과	담당자	·과장 박일하, 사무관 권오관, 주무관 김미희 ☎ (044) 201-4011, 4012
	한국교통안전공단		·김강표 처장, 이현주 팀장 ☎ (054) 459-7140, 7145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1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11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, 시범운영 실시 중 !

- 국토부,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시범운영 실태 등 집중 점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‘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’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미 불산사고(‘12.9)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로써
- 국가정책조정회의(‘13.7)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토부 주도로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고, 관련법령 개정*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을 위험물 수송 전담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단 내 중앙관리센터를 설치(‘18.11)한 바 있다.
- * 물류정책기본법 개정(‘17.3),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‘18.3)
-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*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(‘18.12~) 중이다.
- *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유류 등 위험물(150대, 소방청)·유해화학물질(100대, 환경부)·고압가스(50대, 산업통상자원부) 등 시범운영 대상차량 총 300대 선정

-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·환경부·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, 교통안전공단(김천) 중앙관리센터에서 2월 13일(수),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.
 - 첫째, 위험물질 운반 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의 통신 상태와 사전운송계획서의 입력, 중앙관리센터(교통안전공단)로의 정보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.
 - 둘째, 차량의 위치 및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,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 및 충격의 발생 등 이상운행이 감지될 경우 경고메시지 및 안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를 체크한다.
 - 셋째,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위치·적재 위험물 정보 등이 관계기관(경찰청·소방청)에 신속히 전파되는지, 정확한 방재가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한다.
-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“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”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 “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·감독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 “금번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·보완하고, 가급적 조속히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하루라도 빨리 본격 실시·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권오관 사무관(☎ 044-201-40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배경

- 위험물질 관리가 소관 부처별로 산재(10개 부처, 13개 법령)되고, 위험물질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운송사고 시 신속·정확한 방재 곤란
- ☞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('12.9) 후, 국가정책조정회의('13.7)에서 국토부 주도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결정

【 제도 개요 】

-
- ◆ ①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, ② 차량에 단말장치를 장착하여 운송 중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

* 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센터 설치, 위험물질 일정 적재량 이상의 차량 규제

※ 위험물질 운송정보 연계로 운송사고 예방 및 신속·정확한 방재

□ 추진경위

- 사전기술 검증을 위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R&D('13~'15년)
- 모니터링 대상, 전담기관 선정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('16년)
- 물류정책기본법('17.3) 및 시행령·시행규칙('18.3) 개정
- 교통공단(김천) 내 관리센터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('18.11)
-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(300대) 시범운영 실시('18.12~)

□ 향후 계획

- '19년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운영

* '18년 300대, '19년 4,647대, '20년 4,225대, '21년 6,332대 등 총 15,504대 장착 예정

□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체제

- ① 위험물질 운송정보 사전관리 :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전운송계획정보* 수집, 운전자에게 진입제한구역** 안내 등 안전운송 유도

* 위험물질명, 적재용량, 운송경로 등, ** 상수원보호구역, 인구밀집지역, 통제구역 등

- ② 실시간 모니터링 :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이상운행* 차량 중심으로 위험감지

* 진입제한구역운행, 경로이탈, 무정차 장기운행, 과도한 진동·충격 등 비정상운행

- ③ 사고예방 및 대응지원 : 이상운행 시 개선유도를 통한 사고예방, 사고 시 차량위치, 적재물질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전파·사고대응 지원

《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운영 체계》

